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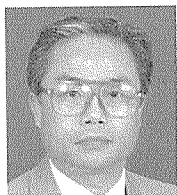
소아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은 행복이며 자녀의 건강은 부모에게 있어서 크나 큰 행운이다. 유소아의 맑고 사랑스러운 얼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생명체의 신비로움과 함께 사랑이 충만해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자기가 낳은 아기의 잠자는 모양, 즉 세근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꿈꾸는 듯한 미소는 자신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는 것 같아 생활의 의욕과 가치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환경에는 절대 안전지역은 없다. 생활권에는 수만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인체를 침략하는 여러 형태의 세균이 잠재되어 있는 이상 부모는 행복으로 충만된 기대 이상으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상상해 보라. 이쁜짓, 고운 짓으로 방긋거리던 아이가 하루밤 갑자기 고열과 구토, 경기 등을 했을 때를. 이웃집 아이와 달리 손가락만 빨고 먹지 않고 창백해지며 정서불안에 쌓여 공포증과 폐쇄된 성격으로 웃지도 않는다면, 특히 요즘은 한자녀 한가정 운동이 일반화 되는 경향에서 자기 아이를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기를 새로이 낳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며 중요한 일이기에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유소아의 건강은 성인의 축소형으로 진단되지 않는다. 유소아의 건강은 아기의 정상발달의 단계에 따라 한 개체로서 각각각색의 특징을 가지면서 세월과 같이 육체적 성장과 함께 정서적, 지적 인격형성의 과정을 걷는다. 이 과정의 유소아에게서 부모의 영향은 엄청나게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생아 시기부터 사춘기까지 정신과 육체의 성장과정, 발육과정, 질병예방과정, 병을 앓을 때의 대책 등 유소아의 '건강체크 스케줄'은 정기적으로 지침화되어 대한소아과학회 차원에서 추천안으로 나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인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유소아를 진찰 검사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하며 악성 후유



김인호
김인호소아과의원장

**정기적으로
유소아를
진찰·검사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치료하며
악성 후유증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증을 유발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질병으로부터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계획표를 설명하면서, 소아과 전문의사에게서 자주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

먼저 생후 4주이내의 건강검진은 성장발육부전과 정신박약을 예방하는 대사장애검사이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인체내 음식물의 대사과정에서 필수적인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신진대사의 중간산물 등이 대량축적되면서 신생아되거나 신체에 독소로 작용하여 성장하면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개 70여종 이상에 이른다.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선천성 대사장애는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히스티딘혈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 등이 있다.

이들 질환의 신생아기 검사는 0.5ml 미만의 혈액으로 일괄검사가 가능하며 만일 검사 결과가 비정상일지라도 생후 2개월 이내에 치료하면 85% 정도는 정상화되므로 이른 시기에 부모들은 검진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

생후 1개월 검진은 BCG(결핵예방) 접종시 소아과 전문의사를 방문했을 때 이때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 육아방향에 대한 상담, 선천성 신체 기형 유무에 대한 소아과적 전문진찰, 수유방법과 수면상태 등을 점검한다.

생후 2개월~3개월에는 경구용소아마비,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 의사를 찾게 되는데 이때 한국에서는 B형간염 예방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아기엄마가 B형간염 보균자일 경우에는 모체에서 수직으로 태아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생시 바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염혈청주사와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간염예방접종은 제조백신의 종류에 따라 1차접종 후 2차, 3차를 한달 간격으로 하는 경우와 3차를 6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조약을 꼭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시청각 발육을 체크하며 대소변 양상을 비교한다.

생후 4개월~5개월에는 백일을 지난 아기의 발육이므로 영양상태를 보고 비만과 영양실조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며 이유식을 시행한다. 고관절 운동제한 여부를 확인 양쪽다리를 비교하고, 목가누기 정도에 따라 중추신경계통의 운동발육을 알아본다.

생후 6개월~7개월에는 신장기능의 성숙도 및 방광요로계통의

특집 · 어릴 때 건강이 평생건강을 좌우한다

생후 4주이내의
건강검진은
성장발육부전과
정신박약을
예방하는
선천성 대사
장애검사이다.

문점(요로기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하고 눈동자의 정상성장을 위해 사시유무를 진찰하며 소아마비, DPT 3차 기본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때 홍역이 유행하는 한국에서는 홍역접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접종시 혹은 접종전에 결핵반응검사를 받아 결핵의 감염여부, BCG면역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생후 8개월~9개월 때에는 유아빈혈(특히 철결핍성)이 호발하므로, 모유영양아는 철분보충 이유식을 해야 하며 일반혈액검사를 해두어 빈혈유무 및 백혈구 형태 등을 확인해 둔다.

생후 12개월~15개월 때에는 첫돌이 지나므로 성장상태 전반을 체크하면서 시정각 이상유무, 소화기 발달상태, 골격발육 상태를 비교하고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요로계 감염 여부와 단백뇨, 당뇨 등을 점검한다. 이 때는 간기능검사와 함께 B형간염 항체생성여부도 확인해 둔다. 모유를 끊고 치아발육과 함께 본격적인 이유식을 시행해 두는 시기임을 명심해야 하며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의 예방, 수두예방, 결핵반응검사를 재시행해야 한다.

생후 18개월의 건강검진은 걸음걸이의 모양으로 하체 발육과 하지골격이 이상성장(O형, X형 등)을 비교하고 빈혈로 인해 야기되는 이식증유무, 언어발달(언어발육지연), 대소변가리기 등을 점검하고 소아마비 DPT 1차 추가접종을 완료한다.

만 2~3세의 유아 때는 대소변검사, 일반혈액검사, 결핵반응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3세가 되면 치과진료, 시력 안저검사 등의 안과진료, 사회생활의 적응력과 친구, 이웃, 가족간의 의사표시 등을 관찰하여 정신신경 발육상태를 알아본다. 이때부터 혈압측정과 함께 장티푸스, 일본뇌염 백신을 봄철에 완료해 두는게 좋다.

만 4~5세때 혈압, 충치 및 치열 등 치과검사, 시력 및 청력검사를

하면서 일반 혈액검사, 간기능, 소변기능 등 대변검사, 흉부X선 검사, 심전도 등을 하여 전반적 이상유무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 또한 B형간염 추가접종, 소아마비, DPT 2차 추가 등 추가예방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만 6~8세때 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하는 학동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가족력의 변화(동생관계), 등교거부증, 엄마와 분리공포증 등의 신경증 유발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정신신체증인 복통, 구토, 야뇨증 등이 나타나므로 정서발육을 점검해야 한다. 전반적인 건강 검사 역시 한번은 해야 하고 비만증에 대한 예비검사 및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12~15세의
여아의 경우
풍진항체검사
등과 함께
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호흡기검사 및
결핵검사,
콜레스테롤치
등을
한번은
확인해 두어야
한다.**

9~12세 연령 소아들의 건강검진은 실제 학교건강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학교생활의 적응력, 약물의 남용예방, 음식 주변 성교육 등을 위주로 정신발달과 사회적응검진이 중요하다. 물론 신체적 검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혈액검사, 심전도, 흉부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여아인 경우) 등을 몇번정도 해 두도록 한다.

12~15세의 사춘기 아이들의 검진은 성적발달, 약물, 음주, 흡연, 학교문제가 신체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병 등 성적교육과 함께 정신건강을 체크하면서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시험, 과외 등으로 쇠약해지기 쉬운 위장관 및 신체 발육에 특히 검진의 초점을 맞추고 성인형 TD 예방접종 추가, 장티푸스, 일본뇌염을 해 두도록 한다.

여아의 경우 풍진항체 검사 등과 함께 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호흡기검사 및 결핵검사, 콜레스테롤치 등을 한번은 확인해 두어야 한다. 특히 아이의 손가락 빠는 문제, 이식증, 식욕감퇴, 식용항진에 의한 비만증, 활동이 너무 심한 아이, 정신집중이 안되는 아이, 3세 이상인 아이의 야뇨증, 대소변 실금증, 히스테리성 발작증, 과도한 공포증, 말더듬이, 잔인한 행동아이, 학동기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아이, 가족과 접촉을 기피하는 것, 의욕상실, 정서적 불안정, 불만, 우울증의 증상, 가출, 무단결석, 도둑질, 교우관계 이상 등이 생기는 경우 등 이들 모두가 욕구불만과 심리적 심한 갈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동이므로 이들은 건강검진과 함께 전문 소아과 의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고 소아정신과 의사들과의 유대가 필요하다. ㉞